

“상좌 됐으니 열심히 정진해야죠”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세 번째 마을상좌 14명 인연 맺어

흥법사주지 심산(심)에 세 번째 '마을상좌'가 탄생해 주지 심산 스님은 총 38명의 유발상좌와 인연을 맺게 됐다.

4월 25일 오후 7시 흥법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제3기 심산 스님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총 14명의 불자들이 스님의 법제자로 거듭났다. 이번에 심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유발상좌로 인연을 맺은 법제자는 몽골에서 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학생 캅스(Jamts·남)와 아미나(Amina·여)를 포함한 14명으로 초등학교생 어린이부터 자녀를 둔 부모, 외국인이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린 후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부모님들과 대중 앞에서 계를 받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참회언비를 한 후 법계를 받았다. 이어 발원문 낭독, 부처님 전과 심산 스님께 삼배로 예를 올렸다. 더불어 1, 2, 3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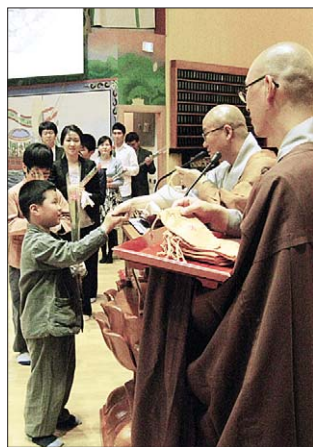
4월 25일 열린 제3기 심산 스님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총 14명이 법제자가 됐다.

상좌 선배들이 참석해 이번이 수계를 받은 사제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번에 심산 스님의 마을상좌로 인연을 맺은 송홍규씨는 "주지스님과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스님의 제자이자 아들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사형사제가 된 송명하씨도 "수계를 받으니 지난날과는 또 다른 감사함으로 온 가슴이 가득차



심산 스님은 새 상좌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계증을 나눠줬다.

다"며 "주지스님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4명의 마을상좌들은 정기적인 도임을 갖고, 흥법사와 심산 스님을 수행과 일상의 의지처로 삼아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게 된다. 주지스님과 차담,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흥법사는 '마을상좌' 외에도 3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기법회'와 4-5세 '동자승 단기출가'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주지 심산 스님은 "진정한 불자는 이런 신행활동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어린이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참된 불자의 씨앗은 많이 심고 싶다"며 "스님이나 절과 인연을 맺는 프로그램을 연 1-2차례씩 정례화해 참 불자로 키워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흥법사는 6월 6일 오전 10시 제19회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 및 호국영령 천도제, 이어 흥법대상,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특별법문도 함께 마련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htdp@hanmail.net

오디도 먹고 사찰체험도 하고

합천 금강선원 5월 29~6월 14일 오디축제

신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시작 6월, 경남 합천에서 새콤달콤한 템플스테이가 찾아온다.

경남 합천 참선마을 금강선원(주지 초중)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 까지 16일간 오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템플스테이 형식을 빌려 사찰에서 하룻밤 머물며, 무공해 야생생나무에서 자란 오디를 따 먹어 맛보고 원하면 집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 특별히 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아 당일치기 나들이로 가볍게 들르거나, 1박 2일부터 원하는 기간만큼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

오디축제 템플스테이의 경우 참가자 간의 마음 나누기 시간을 시작으로 예불, 108 참회기도, 참선 수행, 유점산 산행, 포행, 주지스님과 차담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디열매 채취체험, 시식, 응용오리 강자, 뽕잎차 만들기 시연까지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금강선원이 자리한 유점산은 예로부터 뽕밭과 잡실이 많아 양잠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도량을 둘러싼

뒷산에는 빼곡히 뽕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번 오디축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로 익으면 즙이 풍부해지며, 당분이 들어 있어 새콤달콤한 맛에 신선한 향기가 난다. 현대인들에게 오디는 강장제로 알려져 있으며 날로 먹거나 술 또는 주스로 따귀 마시기도 해 건강보조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초중 스님은 "오디"라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옛날 고향산에서 따먹던 검붉고 새콤달콤한 열매의 맛은 아련한 추억처럼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디축제를 찾으신 분들이 번뇌스런 마음을 모두 털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금강선원 도량 주변의 불거리 역시 풍부하다. 5분 거리에 위치한 합천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소, 유서 깊은 해인사 등은 가족 주말여행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055)931-9590

박지원 기자

불교, 영어와 만나다

영광예술문화원 불교영어 특별강좌

영광도서 영광예술문화원(사장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은 5월 23일 오후 2-5시 4층 문화사랑방에서 불교영어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故 정화 스님의 상좌 주경 스님(강릉 성원사 주지, 국제선원 무문관 강사)과 불교영문번역가 박영의(충남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 박사가 강단에 올랐다. 특히 박영의 교수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 영문번역위원회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수많은 불서를 번역하는 등 국내 불서번역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약 3시간여 이어진 이날 강의는 먼저 주경 스님이 '영불선과 업'을 주제로 1시간여 설명했다.

이어 박영의 박사가 단상에 올라 한국불교 영문번역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외국인 불자

들이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기위해 사찰에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광예술문화원은 3월 14일~7월 11일 영어로 쉽게 배우는 '불교 영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교재는 <가장 행복한 공부> <The Most Joyful Study>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삼십송>이다. 이두석 국제포교사, 오창원前海동고교장, 옥철우 영어학원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6개월간 진행되고, 강의비는 무료다.

영어와 불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과정도 개설된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하루빨리 건강해지세요”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2회 환자 쾌유 위한 음악회'

병마와 싸우는 종합병원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희망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2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5월 14일 부산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희망의 선율을 선사함으로써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함께 나누는 시간'에는 따뜻한 차와 사랑의 떡을 부산대학교병원 전체 병동에 함께 나누며 스님들이 직접 환자들을 방문해 격려의 인



5월 14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어 환우들을 위로했다. 성주원 합주부가 공연하고 있다.

사를 전했다. 이어 2부 '희망의 노래'에는 성주원 합주부, 붓다 중창단, 상무 스님의 현악 4중주, 흥법사 동명 어린이회, 가수 이진석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1시간여 펼쳐졌다. 특히 성주원 합주부는 1972년 창

단한 이래 음악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안정, 언어발달 등을 돕는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치료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정기적인 자연연주와 저명 음악인과의 협연, 전국 음악경연대회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범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함께한 모든 환우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가정에 반박이 깃들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우리 사회의 온기 넘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전달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수행에서 행복 찾아야”

법계정사 개원 1주년 월호 스님 초청법회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와 부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은 법계정사 개원 1주년을 맞아 월호 스님 특별초청대법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5월 15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법계정사에서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을 초청해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서 스님은 부산 불자들에게 수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 2시간여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 명예회장 정금강행 보살(93)이 부산 해



정금강행 보살(왼쪽)이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오른쪽)으로부터 공포배를 받고 있다.

운대구 일원 땅 1000평, 전라남도 영광 일원 땅 7000평 등 총 8000평의 부토산을 기증했다. 정금강행 보살은 신도회 창립 당시, 초대회장 故 강석진 동명목재회장을 보좌해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을 맡으며 42년 역사의 신증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기도 흥왕을 누리며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현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글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실, 육류방,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어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채소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정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와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운전하는 가족친자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